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

인천소식

정 찬 흥 | 인천일보 기자

『2003 사랑의 음악회』 개최

만성신부전 환우들을 돕기 위한 『2003 사랑의 음악회』가 지난 4월 29일 오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막을 올렸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경인지역본부가 주관하는 이 공연은 장기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을 돕기 위해 지난 1994년 시작된 행사. 신장을 준 이와 받은 이,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자들이 합창단을 만들어 장기기증운동을 홍보하고 환우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음악회를 10년째 계속해 오고 있다.

사랑과 희생으로 가득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합창단'은 이번 공연에서 함께 하는 삶과 희망, 나눔의 기쁨이 넘치는 선율을 선사했다.

『새얼문화축제 큰마당』 열려

인천의 '시민정신'을 이끌어가는 '새얼문화재단'이 5월 27일 오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한번째 『새얼문화축제 큰마당』을 마쳤다.

'2003 국악의 밤'이란 제목으로 열

리는 이번 무대는 국악의 큰 얼굴들과 인천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한바탕 신명나는 놀이의 마당이 됐다.

첫 무대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준비한 서곡으로 꾸며졌다. 이어 인천시립무용단원 20여 명이 국악관현악단 반주에 맞춰 '여명의 빛, 인천의 빛이여'를 주제로 모란꽃을 양손에 들고 인천을 떠받치는 화려한 춤사위를 선보였다. 무용단은 또 경기도 당국 장단으로 구성되고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뜻을 지닌 태평무를 통해 21세기 문화 인천의 태동을 알렸다.

특히 인천의 갯가 여인네들 사이에서 놀이노래로 전승된 <나나니타령>(인천 지방무형문화재 3호)에 맞춘 '나나니춤'을 한명옥 시립무용단 예술감독의 안무로 펼쳐 보였다. 인천에서 전승되고 있는 '나나니춤'은 다른 지역의 향토춤과는 달리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한마당에서 흥과 멋을 살려내는 특징을 갖고 있다.

셋째 무대는 무형문화재 57호인 경기민요 이수자, 강연옥이 <정선아리랑>을 비롯한 경기민요를, 1998년 KBS 국악대경연 금상과 같은 해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한 최정원이 국악가요인 <님> <배 띄워라> 등을 들려줬다. 전주대사 습놀이 경기민요부문 장원, KBS 국악

경연대회 장원 등 다채로운 수상경력을 자랑하는 김장순은 <박연폭포> <태평가> <벚노래> 등 신명나는 경기민요 메들리를 연주했다.

공연 후반에는 우리 국악의 세계화와 대중화를 위해 애를 써온 조상현 명창이 이 공연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다. 국악을 대표하는 조 명창의 깊고 장중한 판소리 한마당은 이 무대를 찾은 관객들을 감동의 물결로 빠져들게 했다.

이날 공연의 마지막은 월드컵 행사 때 선보여 큰 호응을 얻은 인천시립무용단의 <두드리라>에 돌아갔다. 동북아의 요충지가 될 인천의 원대한 '꿈과 의지'를 북소리에 담아 펼쳐낼 대합주를 통해 인천의 새로운 비상을 기약했다.

전국연극대회 출품작 <고목> 선보여

전국연극대회 출품작인 <고목(古木)>이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계양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선보였다.

제2회 함세덕 회곡상 제정기념 초청작인 이 연극은 해방공간에서 격렬하게 대립하는 세력들의 관계를 고목을 매개로 해 그려낸 작품. 인천시 동구 화평동 부근을 소재로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고목을 쓰러는 주인공 거북과 불쌍한 동포를 위해 사용하려는 다른 등장인물들과의 갈등을 묘사해 냈다.

〈황족작품전〉 개최

중국 마지막 황조 후예인 아이신조우뤄 위즈위이(42)의 〈황족작품전〉이 5월 9일부터 15일까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장에서 개최됐다.

아이신조우뤄는 ‘시작하는 성씨’라는 뜻을 가진 만주어로 청왕조의 창건자인 누루하치의 족성. 위즈위이는 이런 정통 청왕조의 직계로 청선종도광황제계 제5자 순근친왕 이종증손녀다. 마지막 황제로 잘 알려진 ‘푸이 황제의 5촌 조카’라는 설명을 덧붙이면 더 이해가 쉽다.

일본, 대만, 서울 종로 공간그룹 전시회에 이어 네번째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서는 그의 대표작 50여 점이 내걸렸다. 현재 전업화가로 활약하고 있으며 지난 1995년 일본 현대미술협회 초청으로 문화교류활동을 펼친 이후 일본을 비롯, 대만, 홍콩, 북경 TV 등 통해 그의 작품과 인생역정이 대대적으로 소개된 바 있다.

〈한·중 서예교류전〉 열려

인천서예술연구회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威海) 시 서법가협회가 함께 참여하는 〈한·중 서예교류전〉이 5월 10일부터 15일까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인천과 웨이하이 간 문화예술 교류가 확대되기를 바라는 두 도시의 서예가들에 의해 마련됐다. 이들은 이를 위해 지난 3월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정기 교류전을 갖기로 합의했다.

그 첫 결실이 양국 서예작가 28명의 작품 64점이 참여하는 이번 〈한·중 서예교류전〉. 인천서예술연구회 제13회 정기전을 겸해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우리 측 작가 18명이 한 사람당 3점씩 모두 54점을 출품했다.

은율탈춤 제26회 정기공연

“애 말뚝아~” “아이고~부르셨습니까, 잘난 양반 나으리.”

서민들의 희로애락과 욕망, 희망이 담긴 ‘은율탈춤’ (중요무형문화재 61호) 제26회 정기공연이 5월 8일 오후 2시 수봉민속놀이마당에서 펼쳐졌다. 모두 여섯 마당으로 이뤄지는 은율탈춤은 활기찬 춤사위와 걸쭉한 소리, 해학과 익살이 가득한 대사로 흥과 맛이 넘쳐 흐르는 우리 전통놀이극이다.

말뚝이, 사자, 상좌, 목중, 최팔이, 노승, 새매시, 원승이, 영감, 할미, 똥단지, 무당 등 독특한 인물들이 등장하며 귀면형의 목탈과 인물탈 24종이 동원됐다. 꼬득이타령, 대꼬타령, 병신난봉가, 나니가 타령 등 공연 중 흐르는 소리들도 은율지방 향토색이 짙은 민요들이다.

찬조공연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58호 ‘김대균의 줄타기’가 준비됐다. 줄타기는 삼으로 만든 동아줄 위에서 재주를 부리거나 재담을 섞어가며 줄을 타는 놀이. 줄의 높이는 3m, 길이는 10m쯤 된다. 줄타기는 고환·우환·환회·주삭·승기·회승·새연삭·답삭회·답삭이라고도 하며 예부터 사월초파일, 단오굿, 추석 등 명절날에 볼 수 있었다.

경기소식

류 주 선 | 경인일보 기자

수원시립합창단 창단 20주년 기념음악회

합창도시 수원의 심벌인 수원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민인기)이 창단 20주년을 맞아 5월 19일 수원 경기도문화예술회관, 5월 22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기념음악회를 가졌다.

수원시립합창단이 20주년 기념으로 내놓은 레퍼토리는 초연곡. 나인용 연세대 명예교수와 박정선 단국대 교수에게 창작곡을 위촉, 나 교수는 〈20년 만의 눈〉 〈시편 150〉 〈비롯함도 마침도 없는 님아!〉 등 3곡을, 박 교수는 한반도 통일과 평화를 기원하는 〈미사 브레비스 아리랑〉을 이 음악회를 통해 발표했다.

이 밖에 브루크너의 〈3 Gradual〉, 한국창작합창곡, 흑인영가를 노래해 그동안 합창단을 사랑해 준 관객들에게 선사했으며 OB단원 100여 명과 함께 노래하는 순서도 마련했다.

수원시립합창단은 창단 20주년을 발판으로 세계로 진출할 계획이다. 올해 8월 영국합창지휘자협회 초청으로 마련된 유럽 3개국 순회연주회가 그 시작이다.

민 지휘자는 “그 동안 세계합창올림픽이나 합창페스티벌에 초청됐던 적은 있으나 음악회를 갖는 형식은 처음일 것”이라며 “지난 20년의 결실을 바탕으로 새 출발 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일미술관 정식 개관

가평군에 사립미술관이 탄생했다. 건 축가 강건국(58) 씨가 사재를 털어 가평군 외서면 삼회리 북한강변 2천여 평의 땅에 가일미술관을 지어 5월 2일 정식 개관했다. 미술관은 전시장, 공연장을 겸한 카페, 레스토랑 등 4개 건물로 구성돼 있다.

개관기념전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5월 18일까지 열린 1부 전시회는 ‘한국의 증진작가 43인’이라는 제목으로 김진명, 성백주, 윤재우, 이한우, 전상수 씨 등의 작품을 전시했다. 이어 5월 23일부터 7월 20일까지 열고 있는 2부에서는 ‘한국 현대미술의 다양성’을 주제로 박남신, 김태호, 신중독,

이석주, 김옥선 씨 등 창의성이 돋보이는 작가 45명의 작품을 전시 중이다.

강 관장은 “단순 전시공간이 아니라 가평의 문화 발전을 이끌어가는 문화공간으로 일구하고 싶다”며 “인근 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행사를 통해 참여형 미술관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소식

남궁현 | 강원일보 기자

『제10회 봄내종합예술제』

문화예술의 도시 춘천 예술인들의 한마당 예술잔치 『제10회 봄내종합예술제』가 5월 16일부터 24일까지 춘천 일대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춘천예총(지부장 이수웅) 주최로 열린 이번 예술제에는 예총 산하 8개 회원단체가 1년 동안 갈고 닦은 주옥같은 작품과 축제가 열려 시민과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5월 16일 오후 6시 30분 성공적인 예술제를 기원하는 ‘고천식’과 연극협회 공연 <예세>를 시작으로 미술협회가 17일 오전 10시 삼전동 컨벤션홀에서 봄내학생미술실기대회를 열었다. 수상작은 6월 14일부터 20일까지 춘천미술관에서 전시하게 된다.

사진작가협회는 5월 17, 18일 오후 1시부터 명동에서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촬영, 현장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시민 인물사진 무료촬영을 마련,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국악협회는 17일 오후 5시 어린이회관 야외무대에서 민요, 무용, 사물놀이, 관현악 연주 등을 선보였으며, 음악협회는 19일 오후 7시 한림대 일송아트홀에서 봄내청소년음악제를 개최했다.

문인협회는 22일 김유정 문학촌에서 봄내청소년백일장을 열고, 연예협회는 24일 오후 4시 어린이회관 야외무대에서 봄내청소년가요제를 열어 청소년의 재능을 선보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어 이날 오후 7시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무용협회(지부장 김영주)의 <영원의 땅 강원 큰 아라리>가 공연되는 등 지역의 정서와 문화를 담은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졌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봄 음악회

소설가 이외수(57) 씨가 준비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봄 음악회 ‘귀로 본다’가 5월 18일 오후 4시 춘천 한림대 일송아트홀에서 열렸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이윤아(33) 씨를 초청, 시각장애인을 위한 아름다운 소리를 전한 이번 음악회는 이씨의 앞을 보지 못하는 오랜 말동무이자 술동무인 길인배 박사와 그의 오래된 여성맹인 독자와의 인연으로 기획돼 눈길을 끌었다.

공연장에는 강원명진학교 시각장애 학생 90여 명, 도내 및 수도권 시각장애인, 보호자, 맹견 등 약 400여 명이 무료로 초청됐으며 입장 수익금은 시각장애인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활용된다. 특히 공연기획을 맡은 아카디아에서는 공연 팸플릿, 티켓 등을 모두 고가의 점자로 만들어 공연 당일 시각장애인들에게 배포하는 등 세심히 배려해 장애인 가족들의 박수를 받았다.

‘마임의 집’, 위도에 신축 예정

국내 유일의 마임전문 소극장 ‘마임의 집’이 춘천 위도에 새롭게 들어설 전망이다.

춘천시와 (사)춘천마임축제위원회는 춘천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잡은 춘천마임축제의 관광객을 연계, 한국 마임의 다양한 모습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

는 마임의 집을 확대,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춘천예술마당에 위치한 20여 평 규모의 마임의 집은 춘천마임축제의 하이라이트 ‘도깨비난장’이 열리는 위도로 옮겨져 보다 넓은 소극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위도는 지난 2001년부터 춘천마임축제의 도깨비난장이 열리면서 주말 축제 공간으로서 젊은이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아온데다 위도관리사무소(대표 김성수) 측에서 평소 마임의 집 건립을 위해 부지를 기부 채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대전소식

엄은화 | 중도일보 기자

대전·충남 연극 열기 가열

오는 6월 12일부터 30일까지 19일간 공주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1회 전국연극제』에 대비한 연극계의 움직임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제21회 전국연극제』가 중소 도시로는 처음으로 공주에서 개최되는 만큼 문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연극제 이상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앞장서자는 데 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전국연극제 운영·홍보위원 위촉식 및 행사준비 상황 설명회 갖고, 전국연극제의 성공 개최에 만전을 기할 것을 결의했다. 연극제에서는 종전보다 창의적이면서도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지역 연극의 위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작품 제작에 매진하고 있다.

대전시 연극협회는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5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대전 대표팀을 선발하는 연극제를, 충남

연극협회도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연기문화예술회관에서 공주, 홍성, 천안 팀이 경합을 벌이는 『제21회 충남 연극제』를 개최했다. 그 결과 대전에서는 극단 마당의 〈꽃마차는 달려간다〉가 대상을 받았다. 30여 년의 긴 역사를 바탕으로 극단 마당이 선보인 이 작품은 짜임새 있는 구성과 탄탄한 연기력이 돋보였다는 평을 받았다. 이 작품은 대상 외에도 연출상 진규태 씨, 최우수 남자 연기상 이종국 씨, 무대미술상 윤진영 씨 등 총 4개 부문을 석권하는 영예를 안았다.

충청남도연극제에서 공주극단 젊은 무대가 대상과 연출상을 받았다. 창작 초연 가무극 〈천도헌 향가(遷都獻香歌)〉(작가 국민성·연출 서경오)는 창작 초연 가무극으로 부여에서 발견된 백제 금동대향로의 제작을 통해 엿볼 수 있는 백제인의 세계관과 예술성을 가무극 형태로 표현했다.

충청소식

이 현 숙 | 충청일보 기자

충청필하모닉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충북지역의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충청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결성된 지 1년 만에 창단연주회를 가졌다. 그 동안 소규모로 연주활동을 가져왔으나 지난 4월 든든한 후원자를 만나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 것이다.

지난 4월 23일 저녁 7시 30분 청주예술회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 창단연주회는 청주과학대 이강희 교수의 지휘로 시비도스의 〈폭풍우〉, 구노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황홀한 꿈 속에 살기 위해〉, 도니체티의 오페라 〈엘리제 디오르〉 중 〈남몰래 흐르는 눈물〉,

베르디의 오페라 〈리콜레토〉 중에서 〈축배의 노래〉, 하이든의 〈콘체르 협주곡〉을 연주했다.

이외에도 김성태 곡 〈동심초〉 등 한국 가곡을 비롯해 영화 음악과 팝 음악을 들려줬다. 협연은 소프라노 신지화(이화여대 교수) 씨, 테너 신동호(중앙대 교수) 씨, 첼로 채희철(숙명여대 교수) 씨가 무대에 섰다.

1년에 두 번 정기연주회를 준비하고 음악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문화소의 지역 순회연주도 계획하고 있다.

극단 청사〈돼지사냥〉 공연

극단 청사가 제53회 정기공연작으로 〈돼지사냥〉(이상우 작)을 5월 6일부터 24일까지 문화공간 너름새에서 공연했다.

〈돼지사냥〉은 연극이라는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조명한 연극이다. 남성 중심 세상의 이데올로기, 진짜보다 가짜가 대접받는 풍조, 진실보다 거짓이 통하는 풍조, 소문과 오해의 연쇄반응, 끝없는 거짓말 게임들로 이뤄진 비현실적인 사회의 상황을 신랄하게 풍자했다.

이 연극은 주로 일상의 단편들을 '반복기법'을 통해 보여주면서 웃음이라는 매개를 이용, 일상에 대한 관객의 통념을 바꿔주고 있는 것이 특징. 즉 동일 사건을, 그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을 각각의 입장으로 반복해 극을 풀어낸다.

대사 중에는 예사로 걸쭉함이 튀어나오고 배우들은 주문처럼 사회를 향해 저주를 퍼붓는다.

작품 속의 '돼지'는 인간 한계에 대한 도전을 상징한다. 매번 좌절하고 파멸해 가는 현대인의 무모함에 대한 풍자 속에 작가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연출 남상욱, 출연 이승부, 문길곤, 이계백, 김상규, 임은옥.

엘파즈 팝 재즈 싱어즈 공연

세계적인 합창단인 '엘파즈 팝 재즈 싱어즈'가 청주무대를 찾았다.

지난 5월 10일 저녁 7시 30분 공군사관학교 성무관에서 열린 이번 초청공연에는 재즈 가수인 4인조 엘파싱어즈와 10인조 엘라 일렉트릭 밴드, 30여명의 합창단으로 구성된 엘파즈가 무대에 섰다.

이번 청주공연에서는 새로운 감각의 합창과 팝, 재즈를 선보였으며 인도네시아 발리 민속음악과 춤 등 엘파즈 팝 재즈 싱어즈의 모든 것을 보여줬다.

연주곡은 마이클 잭슨과 엘비스 프레슬리의 록 앤드 롤, 1980년대와 1990년대 아바와 비지스 음악, 비틀즈 애창곡, 세계적인 팝가수 휘트니 휴스턴의 히트곡을 비롯해 한국의 애창가요를 들려줬다. 이외에도 브로드웨이 뮤지컬, 배리 마닐로우 애창곡, 디스코, 유명 영화 사운드 트랙, 라틴 삼바와 살사 등을 연주했다.

대구·경북소식

박 병 선 | 매일신문 기자

『대구아트엑스포 2003』 성공적 개최

국내 최대 아트페어(미술품 견본시장)를 표방하며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구아트엑스포 2003』은 관객 동원, 작품 판매 등에서 성공한 행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열린 이번 아트엑스포는 지역경기 침체와 미술품 시장의 만성적인 불황 등으로 관객 동원과 작품 판매에 어려움이 적잖은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렇지만 교통여건이 그리 좋지 않은데도 1만 명(유

료관객 6천여 명 포함) 이상의 관객이 찾아왔고, 꽤 많은 수의 작품이 팔려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시립극단 <동화세탁소> 최다 관객

대구시립극단(단장 이상원)이 5월 10, 11일 이틀 동안 대구문화회관에서 공연한 <동화세탁소>가 근래에 보기 드물게 작품성, 흥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연극으로 평가됐다. 이번 공연에는 3회 공연에 3천 명이 들어 시립극단의 실내공연으로는 최다 관객 동원을 기록했다.

<동화세탁소>(안희철 작)는 실재하는 대구 윤락가 자갈마당 앞을 배경으로 경찰, 창녀, 강패 등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삶과 희망을 그린 휴먼 드라마. 애니메이션과 극중극 형식의 세탁소, 1천여 벌의 옷이 무대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큰 볼거리였고, 질펀한 경상도 사투리가 극의 맛을 더해 줬다는 평이다.

이상원 감독은 “구미 등 경북지역 순회공연이 잡혀 있고, 공연을 본 광주 연극 관계자들도 초청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시립극단은 올 가을 11회 정기공연작으로 천재화가 이인성의 일대기를 그린 <노을 앞에서>(가제)를 준비하는 등 대구를 무대로 하는 작품을 계속 공연할 계획.

『대국 국제 표현의 자유 축제』

대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난 1월 탈북자의 보트 탈출을 취재하다 중국 공안에게 체포된 프리랜서 사진가 석재현(33·경일대 강사) 씨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대국 국제 표현의 자유 축제』를 개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영어학원 편집실에서 일하는 나이언 스타키아(34·캐나다) 씨 등 외국인 5명은 5월 18일 대구 월드컵 경기장 내 야외공연장에서 취지에 동감하는 사진

가, 화가 등의 작품 전시와 전국의 내·외국인 밴드 공연, 각종 이벤트 등을 열었다.

경남소식

강 동 현 | 경남일보 기자

『제2회 문신미술상』에 노재승 교수

마산이 낳은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文信) 선생의 예술 혼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시행한 『제2회 문신미술상』 수상자로 노재승(57) 성신여대 조소과 교수가 선정됐다.

마산시는 지난 5월 12일 문신미술상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6명의 심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위원회를 열어 총 11명의 후보자를 놓고 심사를 벌인 결과 노 교수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석구(공주대 교수) 심사위원장은 “후보 11명 중 본심에 오른 3명이 이들 모두가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한 중견작가들로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뚜렷한 작품세계를 지니고 있었으나 1970년대 이후 <역의 율출>이라는 연작으로 뚜렷한 조형세계를 구축한 노 교수를 이번 미술상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2003 경남 차사발 초대전』 열려

한국 차사발의 중심지인 경남의 대표적인 작가들의 차사발 작품을 한꺼번에 감상할 수 있는 『2003 경남 차사발 초대전』이 지난 5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경남도문화예술회관 대전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경남도도와 KBS 창원방송총국이 공동 주최하고 도문화예술회관이 주관하는 이번 초대전은 도내 도예작가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말차 보급 등 차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도내 흙을 이용해 빚은 차사발을 한데 모아 소개하고자 마련한 행사.

이번 전시에는 길성(하동)·민영기(산청)·신재균(사천)·우동진(양산) 씨 등 도내 작가 102명이 참여, 장작가마 등으로 심혈을 기울여 빚어낸 431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제1회 천상병 문학제』 열려

『제1회 천상병 문학제』가 시인 타계 1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4일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귀천’ 시비(詩碑) 주위에서 열렸다. 이번 문학제는 천상병 시인의 작품세계를 기리고 문학성을 길이 보존하는 뜻과 문학의 저변확대를 꾀하여 문학적 소양을 드높이고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

이날 오전 10시부터 본격적인 문학제가 ‘귀천’ 시비 주위에서 열렸는데, 시암송(낭송)회, 사이버 삼행시 짓기 우수작 시상식, 사이버 백일장 우수작 시상식, 시사문단 문학상 시상식, 천상병 시문학상 시상식 등을 개최했다. 또 천상병 문학상 수상자로는 문정희 시인이 선정돼 이날 시상식을 가졌으며 시상식 후에는 천상병 추모제가 열렸다.

극단 마산 <날 보러와요> 최우수 영예

지난 4월 19일 폐막한 『제21회 경남연극제』에서 극단 마산의 <날 보러와요>(김광림 작·김민기 연출)가 영예의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 작품은 아직까지 미결로 남아 있는 전대미문의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극단 마산은 상금 200만원과 함께 6월 충남 공주에서 열리는 『제21회 전국연극제』에 경남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경남연극협회(지회장 장창식)와 경남도가 주최하고 사천연극협회(지부장

이재용)와 사천시 주관으로 열린 이번 연극제에서 우수상은 통영 극단 벅수골의 〈그 섬엔 신이 살지 않는다〉와 진해 극단 고도의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가 받았으며, 장려상은 거창 극단 입체의 〈산유화〉와 사천 극단 장자번덕의 〈토선생전〉이 각각 수상했다.

이 밖에 ▲연출상=유병철(진해 고도) ▲희곡상=이종일(거창 입체) ▲남자 연기대상=차병배(진해 고도) ▲여자 연기대상=안정민(극단 마산) ▲무대예술상=진주 극단 현장·왕원 예술극단이 각각 차지했다. 이번 심사는 정현(연기자)·방은미(연출가)·오태영(극작가) 씨가 맡았다.

『제2회 산청 국제현대조각심포지엄』

『제2회 산청 국제현대조각심포지엄』(대회장 권철현 산청군수·조직위원장 박찬갑)이 지난 5월 3일 오후 2시 개막을 시작으로 7일까지 산청군 생초면에 있는 박찬갑 창작스튜디오(옛 고읍초등학교 터)에서 열렸다.

지난 2000년 제1회 심포지엄에 이어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행사는 특히 중견 조각가 박찬갑(63·전 숭실대 교수) 씨가 고향인 산청에 마련한 창작스튜디오 개관에 때맞춰 열리는 행사라 그 의미를 더했다.

지난 1회 때보다는 참가국과 작가가 줄었지만 단순 이벤트성 행사를 축소해 내실 있게 추진한 이번 행사에는 한국·일본·호주·이탈리아·프랑스 등 8개국의 국내외 유명 조각가들이 초대됐다.

민복진·전뢰진·홍성문 씨 등 국내 작가 3명을 포함해 『제1회 산청 국제조각심포지엄』 대상을 수상한 사토루 사토(일본), 콜메나르츠 아스트루발(베네수엘라), 스타치올리 마우로(이탈리아), 요셉 마리아 카미(스페인), 하미

두차만 칸(방글라데시), 로저 맥팔레인(호주), 에티오피아 오우드프레이(프랑스) 등 10명이 참여해 조각의 전 과정을 보여줘 이곳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조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산소식

장 병 윤 | 국제신문 기자

『2003 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

국내 최대의 단편영화 축제인 『2003 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가 5월 15~20일까지 경성대 콘서트홀, 시네마테크 부산 등에서 열렸다.

이 영화제에서는 15개국 작품 136편이 한국단편경쟁, 아시아 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특별전 등 5개 부문에 걸쳐 소개됐다.

유일한 경쟁부문인 한국단편경쟁 46편, 아시아극·실험영화 38편, 애니메이션 28(국내 21, 해외 7)편, 다큐멘터리 9(국내 3, 해외 6)편과 함께 특별전에 출품된 실험영화 15편이 상영됐다. 끊임없는 이미지 탐구와 표현영역의 확장이 돋보이는 실험영화와 최근 세계 영화시장에서 주목받는 태국의 단편영화가 소개된 것이 이 영화제의 특징.

실험영화 특별전은 독특한 시각으로 촉망받는 젊은 영화감독의 작품 10편을 소개하는 '프레임의 정신(Spirit of the Frame)'과 지난 3월 9일 타계한 미국 언더그라운드 영화계의 '전설' 스탠 브래키지를 추모하기 위한 '스탠 브래키지 - 빛으로 쓴 시'로 펼쳐졌다.

특히 개막작으로 상영된 태국 영화 〈기다림〉(아닷야 아사랏 감독), 〈키 작은 아빠〉(타베퐁 프라툼윙 감독), 〈오

토바이쇼와 풍선〉(라타폴 자나라루안 통 감독) 등 3편이 관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부산의 예술·독립영화의 전진기지 시네마테크 부산은 4월 26일부터 5월 11일까지 1980년대 대만 뉴웨이브의 거장 허우샤오시엔 감독을 집중 조명하는 특별전을 열었다. 이 특별전에는 〈샌드위치맨〉 〈나일의 딸〉 〈평꾸이에서 온 소년〉 〈동동의 여름방학〉 〈동년왕사〉 등 12편의 작품이 소개됐다.

전쟁의 비극성 고발하는 전시회 잇따라

부산 미술계에 전쟁의 부당성과 비극성을 고발하는 전시회가 잇따랐다. 미술그룹 '미디엄'이 4월 30일까지 구서동 엄태익 갤러리에서 열었던 〈테일리 뉴스〉전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부시 대통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출품자는 신무경, 안제국, 김성연, 정운선, 양주원, 박상호 씨 등 12명.

대안공간 반디에서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열린 '만평발언'에서는 젊은 작가들이 날카로운 시선을 통해 이 시대의 암울한 풍경을 만화로 풍자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등 세상에 상존하는 폭력을 질타했다. 변대용, 서수경, 김현곤, 이승엽 씨 등이 출품했다.

또 부산민주공원은 4월 26일부터 5월 11일까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전쟁의 참상을 다룬 사진전 〈전쟁과 평화 그리고 희망〉을 열었다.

제7회 부산 회화제가 5월 12일부터 21일까지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렸다. '문화도시 부산 - 문화시민을 위한'이란 주제로 미술의 대중화를 도모한 이 전시회는 부산 미술문화의 단면과 작품 역량을 아낌없이 보여준 자리이기도 했다.

부산시립미술관이 용두산미술전시관에서 5월 1일부터 기획전으로 마련한 〈먹, 풍경, 그리고 해석〉전은 전통 산수

화의 고수나 기존의 해석에서 탈피해 한국화의 새로운 진로를 전망하고 모색하는 자리였다. 출품 작가는 최광규, 최창호, 윤혁길, 송문익, 강민경 씨 등 5명.

전남소식

김미은 | 광주일보 기자

5·18 23주기 문화행사 다채

5·18 광주민중항쟁 제23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지난 5월 14일부터 23일까지 국립 5·18 묘역과 광주시내 일원에서 펼쳐졌다.

‘우리 아이들의 눈망울에 평화의 미소’를 이란 주제로 열린 올 행사는 특히 금남로와 망월동 일원에서 열리는 대규모 행사와 별도로 각 구별로 소규모 문화행사를 기획, 지역민들이 5·18을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국립 5·18 묘지에서는 광주전남 민족문학작가회의 주관으로 시·소설·산문 등 각 장르에 등장하는 5월 문학사를 정리하는 대규모 시화전이 펼쳐졌으며 올해로 13번째를 맞는 오월전이 ‘나는 너다 - I am You’를 주제로 인제갤러리에서 열렸다.

또 5월 항쟁 미술사진전, 전국노동자 문화제, 항쟁 마당극제, 표현 예술 치유 한마당, 제5회 전국웅변대회, 전국회화대회, 학생 글쓰기 한마당 및 그림과 만화 그리기 대회, 5월 여성극〈세 여자 이야기〉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펼쳐졌으며 푸른연극마을은 〈오월의 신부〉를 광주문화예회관에서 무대에 올렸다.

『제4회 남도연극제』 성료

5월 13일 서울 극단 빛누리의 아동극 〈피터팬〉 공연으로 막을 올린 『제4회 남도연극제』(영·호남연극제)가 5월

13일부터 18일까지 순천 금당야외공연장과 순천문화예회관에서 펼쳐졌다.

모두 1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남도연극제는 자매도시인 진주와 순천지역에서 번갈아 가며 열리는 행사로 올해에는 목포 극단 갯돌의 〈목포의 눈물〉, 순천 극단 거울의 〈번지없는 주말〉, 진주 극단 현장의 〈선택 2003〉, 부산 극단 세이의 〈뇌우〉, 전주 극단 창작극회의 〈상봉〉, 포항 극단 은하의 〈불의 가면〉 등 모두 8개 극단이 참여, 다채로운 연극무대를 선보였다.

특히 이번 연극제에서는 처음으로 순천청년작가회와 구미청년작가회, 진주 석우회, 팔마석우회 등이 함께 참여하는 〈영·호남 미술·수석교류전〉(5월 10~16일 순천문화예회관 전시실)도 열려 다양한 예술 장르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무용단 웃는돌을 이끌고 있는 무용가 홍신자 씨의 특별 강연회도 열렸다.

전북소식

임용묵 | 전북일보 기자

극단 창작극회의 〈상봉〉, 최우수작품상

극단 창작극회(대표 류경호)의 〈상봉〉이 『제19회 전북연극제』(4월 16~20일)에서 최우수작품상을 받았다. 비전향 장기수와 모성애의 오버랩 속에 분단과 이산의 슬픔을 깊이 있게 투영한 창작 초연작품. 원작의 진지한 글쓰기와 작품의 무게를 줄이기 위한 연출의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이다. 연출 류경호 씨(44)가 연출상, 작가 최기우 씨(31)가 희곡상, 망백(望百)의 할머니역을 맡아 잔잔한 감동을 줬던 김순자 씨(37)가 최우수연기상을 받았다.

우수작품상과 무대미술상은 〈봄이

오면 산에 들에〉(극단 하늘), 장려상은 〈사로잡힌 영혼〉(극단 명태)이 받았고, 김은호(황토·이하 극단명)·박선영(하늘)·윤태원(명태)·이혜지(창작극회)·최희영 씨(토지)가 우수연기상을 받았다.

『제29회 전주대사습놀이』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가 29번째 명창을 반열에 올렸다. 주인공은 〈심청가〉 중 심봉사가 물에 빠지는 대목을 부른 송재영 씨(42). 1975년 전국대회가 부활된 뒤 여덟번째 남자 명창이다.

5월 8일과 9일 전주실내체육관과 전통문화센터 등에서 열린 전주대사습놀이는 판소리명창부와 농악, 기악, 무용, 민요, 가야금병창, 판소리일반, 시조, 궁도 등 9개 부문에 347개 팀(692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벌였다.

각 부문별 장원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판소리명창부문 장원=송재영 ▲농악부문 장원=중앙타악 연희단 ▲기악부문 장원=금용웅 ▲무용부문 장원=정영수 ▲민요부문 장원=김점순 ▲가야금병창부문 장원=서영희 ▲시조부문 장원=이미화 ▲판소리일반부문 장원=문명숙 ▲궁도부문 장원=박예엽.

2003 JIFF 폐막, 시네마 전주 내년 기약

‘자유·독립·소통’을 내세운 열흘간의 영화여행 『제4회 전주국제영화제』가 막을 내렸다(4월 25일~5월 4일).

올해 전주가 선택한 35개국 170편의 영화는 대부분 상업적 주류에서 비껴나 있어 대중과의 소통보다는 ‘새로운 것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이 강조됐고 그 성과는 충분했다. 인권 문제를 조망한 개막작 〈여섯 개의 시선〉과 폐막작 〈프롬 헤븐〉은 ‘전주의 탁월한 선택’이라는 평이 지배적. 닝잉과 로랑스 페레

이라 바르보사라는 두 여감독과 브라질의 클라우버 로사 감독에 주목한 점도 성과다.

일반 관객의 관심을 집중시킨 작품도 많아 축제의 균형을 잡는 일도 합격점을 얻었다. 순수 유료객은 6만 명을 넘었고 좌석 점유율도 66.2%를 기록했다. 무료로 한국 영화가 소개된 야외상영장도 성황을 이뤘다.

민병록 집행위원장은 “올해는 무엇보다 시민들이 국제영화제의 성격을 이해하고, 봉사자로 참여하려는 의식전환이 이루어진 것이 큰 성과”라고 밝혔다.

전주풍납제 · 전주종이문화축제, 시민참여형 축제로 자리매김

5월 1일부터 8일까지 ‘온고율의 맛과 멋을 아우르며’를 주제로 전주 태조로와 경기전에서 열린 『제45회 전주풍납제』와 ‘전주종이 생활 속으로’를 내걸고 공예품전시관 일대에서 열린 『2003 전주종이문화축제』는 시민이 만들고 시민이 즐기는 ‘시민참여형 축제’로서 가능성을 보여줬다.

40년 전 향수를 불러일으킨 풍납가설극장(신파극)과 풍물장터, 무성영화 등 새롭게 선보인 전주풍납제 프로그램들은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바람직한 시도로 평가됐다.

종이라는 주제를 잘 살려낸 종이문화 축제는 역사를 담아내는 도구로 활용된 종이의 역할과 조상의 전통생활을 엿보는 ‘종이로 찾아가는 나의 뿌리 - 족보 특별전’, 종이문화와 패션산업의 만남을 선보인 한지 패션쇼 등이 돋보였다.

〈현대미술, 네 개의 눈〉전 열려

일반인에게 모호한 현대미술의 현재를 진단해 본 기획전이 열렸다.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실에서 열린 〈현대미술, 네 개의 눈〉. 제목에서 암시하듯 현대미술의 큰 즐거움을 이루는 회화와 설치, 사진, 미디어 등 현대미술의 여러 장르를 동시에 느끼며 탐구하는 자리.

참여작가는 모두 21명. 구영모 · 정세라 · 최진욱(회화), 황선구 · 김태준 · 이경주 · 김현민(사진), 심영철 · 송필 · 이택근 · 구경숙 · 홍순환 · 김범수(설치), 한계륜 · 고경호 · 정영훈 · 이중재 · 신상호 · 박준범 · 하원 · 이소림(미디어) 씨 등. 미디어 참여작가들은 나이가 젊고 실험적인 작품을 추구하는 작가들이 대부분이고 설치나 회화, 사진 참여작가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보한 작가군들이다.

제주 소식

김 순 자 | 제민일보 기자

『2003 용연야법재현축제』 열려

그윽한 달빛 아래 밤늦게. 용연야법의 풍류를 그대로 되살리는 『2003 용연야법재현축제』가 5월 14, 15일 용연계곡과 제주목관아에서 개최됐다.

축제 첫날인 14일은 시민들이 함께하는 참여형 행사로 구성됐다. 옛 선인들의 풍류를 읊어보는 ‘한시백일장’과 ‘시조경창대회’가 각각 오전 10시부터 제주목관아에서, 용연계곡을 시원하게 가로지르는 전통활쏘기대회가 오후 용연계곡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하루 종일 비를 뿌리는 곳은 날씨로 행사장을 찾는 발걸음은 뜸했으며 축제 분위기 또한 반감, 아쉬움을 남겼다.

15일은 용연야법재현축제의 본 행사인 용연선상음악회가 마련됐다. 오후 7시 용담1·2동 풍물패의 길트리 놀이로 시작, 제주탐라예술단의 선왕굿놀이 및

해녀지들임으로 분위기를 띄웠다. 이후 본격적으로 문을 연 선상음악회는 시립교향악단의 서막연주를 비롯해 한라소년합창단, 우담바라어린이합창단, 제주시립합창단, 소프라노 김정희, 김지은 씨, 테너 현행복 씨 등이 무대에 올라 용연계곡을 제주민요로 가득 채웠다.

또한 용연 위를 유유히 흐르는 배 위에서 명인 이생강 씨의 대금산조, 무용가 김희숙 씨의 살풀이춤, 명창 안숙선 씨의 판소리 〈심청가〉 중 심봉사 눈뜨는 대목 등은 선인들의 풍류가 그대로 재현되는 장면이었다.

제주페스티벌밴드 창단연주회

제주페스티벌밴드(단장 고훈식 · 지휘 양경식)가 5월 6일 제주도문화예술평대극장에서 창단연주회를 가졌다.

제주페스티벌밴드는 제주시립교향악단 관악부, 서귀포시립관악단, 도내 관악연주자 60여 명으로 구성, 국제관악제 기간에 한시적으로 활동해 오던 밴드. 이후 제주국제관악제 및 2004년 아 · 태관악제 개최지로서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전문 관악단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 2월 22일 밴드를 상설화하는 창단식을 가진 바 있다.

이날 제주페스티벌밴드는 코플랜드의 〈보통사람들을 위한 팡파르〉, 쇼스타코비치의 〈축전 서곡 작품 96〉 등을 비롯해 2003 제주국제관악제 위촉곡인 이교숙 씨의 〈제주이야기 1(환상)〉 등을 연주, 국제관악제를 미리 즐길 수 있었다.

호박, 검은 비취, 청옥, 옅은 자주, 짙은 담쟁이, 붉은 포도주 등 6개의 색을 통해 관악의 또 다른 매력을 감상할 수 있는 〈관악을 위한 6개의 색〉 및 알프레드 리드의 〈라틴 환상곡〉, 차이코프스키의 〈서곡 1812 작품 49〉 등도 선사, 갈채를 받았다.